

유럽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와 향후 전망

강유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3460-1226)

차 례 ● ● ●

1. 유럽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2. 평가방법 및 기존 평가와의 비교
3. 재무건전성 평가에 대한 반응
4.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지난 7월 15일 유럽 내 90개 은행에 대한 재무건정성 평가(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은행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평가는 ① 재정위기로 인한 손실, ②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③ 주요 통화에 대한 미달러 약세 등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평가대상 은행이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CT1) 비율 5%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임.
 - 평가대상인 90개 은행 중 8개 은행이 합격기준인 핵심자기자본(CT1) 비율 5%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가에서 탈락된 8개 은행에 대해 25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재무건정성 평가 발표는 유럽 주요 은행들의 재정지표상태와 리스크 대응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임.
 - 이번 평가는 주요 은행의 이익전망치, 자본확충의 질 등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재무건정성 평가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여부를 배제하고 있으며, 그리스 국채에 적용된 상각률(hair-cut)이 낮게 산정되는 등 위험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 지난 7월 21일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추진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은행의 상각이 예정되어 있어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함.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주축으로 한 1,090억 유로의 지원과 함께 민간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540억 유로 상당의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2020년 이전 만기 그리스 국채의 21%를 상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평가사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국채만기 연장을 선택적 디폴트로 간주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안이 증폭될 소지가 있음.

1. 유럽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지난 7월 15일 유럽 내 90개 은행에 대한 재무건정성 평가(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중 8개 은행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함.

- 재무건정성 평가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와 금융위기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비관적 시나리오(adverse scenario)로 구분하여, 비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은행의 재무지표상 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이번 평가에서는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은행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CT1)이 5%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 평가에 참가한 90개 은행은 EU 총 은행자본의 65%를 차지하며, 국가별로 최소 50%를 차지함.
- 평가대상인 90개 은행 중 8개 은행이 CT1 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16개 은행은 CT1 비중이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말 기준으로 90개 은행의 평균 CT1 비중은 8.9%이며, 2011~12년의 기간에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평균 CT1은 7.7%로 하락하였음.
- CT1 비중 5%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들 은행에 대해 총 25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합격 은행들은 향후 3개월 내에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해당국가의 금융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함.
 - 테스트를 가까스로 통과한 16개 은행(CT1 비중 5~6%)은 9개월 이내에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제출해야 함.

표 1. 재무건정성 평가 탈락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 비율(CT1) 및 추가필요 자본규모

국가	은행	CT1 비중 (%)	비관적(adverse) 시나리오 하에서 CT1 비중(2012년)		
			2010년 말 CT1 적용(%)	2011년 4월 CT1 적용(%)	추가필요 자본* (백만 유로)
그리스	Agricultural Bank	6.3	-6.0	-0.8	713
	EFG Eurobank Ergasias	9.0	4.6	4.9	58
오스트리아	Österreichische Volksbanken	6.4	4.5	4.5	160
스페인	Banco Pastor SA	7.6	3.3	3.3	317
	Caja de Ahorros Mediterraneo	3.8	-2.8	3.3	947
	Banco Grupo Caja3	8.6	4.0	4.0	140
	CatalunyaCaixa	6.4	1.4	4.8	75
	Unnim	6.3	1.2	4.5	85

주: * 추가필요 자본은 CT1 비율이 5% 이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를 뜻함.

자료: 유럽은행감독청(EBA).

- 국가별로는 포르투갈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중이 5.7%로 제일 낮고, 그리스(6.1%)와 독일(6.8%) 또한 낮게 나타났으며, 북유럽 및 중·동구 유럽 국가 은행들의 경우 재무건정성이 좋거나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 EBA는 본래 2010년 말 자산을 대상으로 평가하려 하였으나, 2011년 1~4월 중 자본확충을 권고하였으며, 4월 말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함.
 - 2010년 말 기본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20개의 은행이 CT1 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확충 필요액은 26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2011년 1~4월 사이 평가대상 은행들에 대해서 500억 유로의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EBA는 이 자본 확충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 평가대상 은행의 평균 CT1 비율 변화: 8.9%(2010년 말) → 500억 유로의 자본확충(2011년 1~4월) → 7.7%(비관적 시나리오 적용 시 2012년 말).

그림 1. 90개 EU 재무건전성 평가대상 은행의 CT1 비율(비관적 시나리오 적용 시)



	2010	2012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
오스트리아(3)	8.2%	7.6%	0	0	0	1	0	0	1	1	0	0
벨기에(2)	11.4%	10.2%	0	0	0	0	0	0	0	0	0	2
키프로스(2)	7.7%	5.7%	0	0	0	0	1	1	0	0	0	0
독일(12)	9.4%	6.8%	0	0	0	0	2	4	2	1	1	2
덴마크(4)	9.8%	11.9%	0	0	0	0	0	0	0	0	1	3
스페인(25)	7.4%	7.3%	0	0	3	2	7	5	1	3	2	2
핀란드(1)	12.2%	11.6%	0	0	0	0	0	0	0	0	0	1
프랑스(4)	8.4%	7.5%	0	0	0	0	0	2	1	1	0	0
영국(4)	10.1%	7.6%	0	0	0	0	0	1	2	1	0	0
그리스(6)	10.2%	6.1%	1	0	0	1	2	0	2	0	0	0
헝가리(1)	12.3%	13.6%	0	0	0	0	0	0	0	0	0	1
아일랜드(3)	6.2%	9.8%	0	0	0	0	0	0	1	0	0	2
이탈리아(5)	7.4%	7.3%	0	0	0	0	1	2	1	1	0	0
룩셈부르크(1)	12.0%	13.3%	0	0	0	0	0	0	0	0	0	1
몰타(1)	10.5%	10.4%	0	0	0	0	0	0	0	0	0	1
네덜란드(4)	10.6%	9.4%	0	0	0	0	0	1	0	1	1	1
노르웨이(1)	8.3%	9.0%	0	0	0	0	0	0	0	1	0	0
폴란드(1)	11.8%	12.2%	0	0	0	0	0	0	0	0	0	1
포르투갈(4)	7.1%	5.7%	0	0	0	0	2	2	0	0	0	0
스웨덴(4)	9.0%	9.5%	0	0	0	0	0	0	0	1	2	1
슬로베니아(2)	5.7%	6.0%	0	0	0	0	1	0	0	1	0	0
Total	8.9%	7.7%	1	0	3	4	16	18	11	12	7	18

주: 국가 명 옆의 () 안은 국가별 평가대상 은행의 수임.

자료: 유럽은행감독청(EBA).

■ 이번 테스트는 2010년의 재무건정성 평가가 과소계상 등 지나치게 관대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어 대안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임.

- 2010년 7월의 1차 재무건정성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이 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모든 은행이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불과 몇 개월 후 이들 국가가 국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재무건정성 평가가 실제의 경제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동안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은 IMF의 금융안정보고서, G20 정상회담 등에서 거론된 바 있으며, 특히 남유럽 은행들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 2010년 11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ECB의 대출규모가 3,340억 유로에 이르며, 이는 유로 지역 은행에 대한 ECB 대출의 64%를 차지함(*Financial Times*).
- 이번 재무건정성 평가 발표에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초 평가대상인 91개 은행 중 9개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재무건정화를 위해서는 총 290억 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6월 Goldman Sachs, 금융전문가 113명에 대한 설문조사).
 - 응답자 중 57%가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직면할 것임을 확신하였으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각각 16%와 13%의 응답자가 채무재조정을 예상함.

2. 평가방법 및 기존 평가와의 비교

가. 평가방법

■ 이번 재무건전성 평가는 2010년에 비해 호전된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보다 엄격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음.

- EBA는 EU 집행위원회의 경제전망에 따라 2011~12년 기간에 대한 기준 시나리오(baseline)를 작성함.
 - 이번 재무건전성 평가는 2010년에 비해 경기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는데, 2011년에는 EU와 유로 지역 경제가 각각 1.7%와 1.5%, 2012년에는 2.0%와 1.8%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됨.
- 비관적 시나리오는 2011~12년 동안 ① 재정위기로 인한 손실, ②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③ 주요 통화에 대한 미달러 약세 등을 가정하였으며, 2010년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비해 보다 악화된 경제상황을 가정하였음.

■ EU 대내외적 경제충격으로 인해 경기침체, 재정위기로 인한 국가신용위기(sovereign shock) 발생, 주가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2011~12년 기간의 CT1 비율 변화를 추정하였음.

- 경기침체: EU의 GDP가 2011~12년 동안 성장전망치에 비해 도합 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함.
 - ※ 경기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각각 1.4%, 4.5%씩 하락함.
- 국가신용위기로 인해 운용자산 계정(trading book)상의 국채손실(hair-cut)을 가정. 국채손실 비율은 만기(3개월~15년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
 - ※ 국채손실 비율(10년 만기): 포르투갈(19.8%), 아일랜드(19.1%), 그리스(17.1%), 스페인(14.6%), 이탈리아(13.1%), 프랑스(7.3%), 독일(3.5%) 등.
- 국가별 채권수익률(10년물)의 변동: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는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국가별 채권수익률 상승을 가정. 재정위기 위험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채권수익률은 크게 상승.
- 주가하락: EU와 유로 지역의 평균 주가가 각각 14.3%와 15% 하락(미국 S&P500과 일본 니케이(NIKKEI) 지수가 각각 10%와 20% 하락한다고 가정).
 - ※ 경기침체 효과(GDP 감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가 각각 2.2%와 5.6% 하락함.
- 미달러 평가절하: 명목환율 기준으로 미달러화는 11% 가치하락.
- 세계경제(EU 제외)의 경제성장을 저하: 직접효과와 EU 역내교역을 통한 파급효과로 인해 EU의 대외수출이 3% 감소.
-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통화정책을 통한 금리조정은 배제되며, 국채의 디폴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기보유 자산계정(banking book)에 있는 국채의 손실가능성은 추정에서 배제함.

표 2. 비관적 시나리오에서의 가정

		기준 시나리오로부터의 격차(%포인트)		비관적 시나리오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EU 경제에 대한 충격	경제성장률	-2.1 (-5.1: 몰타 ~-0.9: 헝가리)	-2.0 (-4.6: 그리스 ~-1.5: 독일)	-0.4 (-4.0: 그리스 ~-3.0: 폴란드)	0.0 (-2.7: 그리스 ~-2.5: 폴란드)
	물가상승률(HI CP)	-0.6 (-1.5: 핀란드 ~-0.1: 불가리아)	-1.3 (-3.1: 핀란드 ~-0.0: 아일랜드)	1.5 (0.2: 스웨덴 ~-4.1: 루마니아)	0.5 (-1.3: 스웨덴 ~-2.9: 불가리아)
	실업률	0.5 (-1.5: 아일랜드 ~-0.1: 독일, 불가, 루마)	1.4 (0.6: 독일, 프랑스 ~-3.2: 그리스)	10.0 (4.5: 오스트리아 ~-21.3: 그리스)	10.5 (4.8: 그리스 ~-22.4: 폴란드)
	국채수익률 변동	EU: +65.8bp, 유로지역: +75.0bp 국채수익률 상승폭이 큰 국가: 아일랜드(258.0), 그리스(255.0), 포르투갈(246.0), 스페인(165.0) 국채수익률 상승폭이 작은 국가: 독일(0.0), 핀란드(10.5), 덴마크(16.5), 오스트리아(24.0)			
	주가변동	EU: -14.3%, 유로지역: -15.0% 주가하락이 큰 국가: 아일랜드(-23.1%), 헝가리(22.6%), 그리스(-21.5%), 스페인(-20.7%) 주가하락이 작은 국가: 슬로바키아(-6.2%), 슬로베니아(-6.2%), 덴마크(-7.4%), 불가리아(-8.1%)			
	부동산가격 변동	-3.8 (-11.3: 에스토니아 ~-1.5: 독일)	-11.6 (-25.2: 에스토니아 ~-1.2: 독일)		
외부환경	전 세계 경제성장률(EU 제외)	-1.5	-0.3		
	- 미국	-2.0	-0.4		
	- 일본	-2.3	-0.8		
	- 중국	-1.0	-0.1		

자료: 유럽은행감독청(EBA)(2011), Macroeconomic adverse scenario for the 2011 EU-wide stress-test에서 재구성.

나. 기존 재무건전성 평가와의 비교

■ EBA의 전신인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는 2009년 소규모의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를 한 바 있으며, 2010년 7월에는 91개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시행하였음.

- 미국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발표 이후 유럽 은행의 부실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자 CEBS는 유럽 내 22개 주요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 미 재무부는 미국 내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시행, 발표하였으며(2009년 5월 7일),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였음.
 -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CEBS는 유럽 내 주요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대상인 22개 은행 모두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함(2009년 10월 1일).
- 그러나 주요 22개 은행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개별 은행의 재무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이에 2010년 상반기 중 유럽 내 91개 은행(유럽 은행자산의 65% 차지)에 대한 2차 재무건전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7개의 은행이 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음(2010년 7월 23일 발표).
 - 2010년 평가에서는 비관적 시나리오 적용 시 기본자본(Tier 1)을 6%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탈락은행들은 총 35억 3천만 유로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가발표 이후 수개월 만에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유로 지역 위기는 계속 확산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의 새로운 재무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이번에 시행된 제3차 재무건전성 평가에서는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재정위기에 따른 충격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2년 말 CT1 비중이 5%를 상회하는 경우를 테스트 통과로 기준으로 삼음.

- 지난해 실시된 은행 건전성 평가와 달리 판정기준을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으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인 Basel III에서는 2015년부터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4.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

○ 지난해 평가에서는 기본자본비율(Tier 1 capital) 6%를 판정기준으로 삼은 바 있음.¹⁾

- 현재의 재정위기를 반영하여 각 은행이 보유한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규모와 만기, 은행 이익추정 등 심사항목을 3,000여 개로 확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였음(지난해의 심사항목은 149개).

표 3. 2010년, 2011년 재무건전성 평가 비교

2010년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2011년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평가기관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¹⁾					유럽은행감독청(EBA)				
평가대상	91개 은행(EU 은행산업 자산의 65%)					21개국 90개 은행(EU 은행산업 자산의 65%) ²⁾				
평가기준	-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2011년 말 기본자본(Tier 1 capital) 비율이 6%를 하회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 비관적 시나리오: 경기침체(2년간 합산 성장률 전망치 3%포인트 하락), 국채손실률(독일: 4.7%~그리스: 23.1%),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하향조정(4등급), 주가하락(EuroStoxx50, S&P500 지수 각각 연간 20% 하락) ※ 국채 디폴트 가정 제외					-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이 5%를 하회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 비관적 시나리오: 경기침체(2년간 합산 성장률 전망치 4%포인트 하락), 국채손실률(독일: 3.5%~그리스: 25.2%), 주가하락(EuroStoxx50과 S&P500 지수 각각 연간 15%, 10% 하락) ※ EU 재정위기 및 글로벌 수요둔화, 달러화 약세 등을 반영하여, 낮은 경제성장률을 가정 ※ 국채 디폴트 가정 제외				
	기준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1.0%	1.7%	0.0%	-0.4%	1.7%	2.0%	-0.4%	0.0%	
	실업률	9.8%	9.7%	10.5%	11.0%	9.5%	9.1%	10.0%	10.5%	
불합격 판정은행	총 7개: Hypo Real Estate Holdings(독일 1개), Agricultural Bank(그리스 1개), Diada, Espiga, Banca Civica, Unnim, Caja Y.M.P. Cordoba(스페인 5개)					총 8개: Agricultural Bank, EFG Eurobank Ergasias(그리스 2개), Oesterreichische Volksbanken(오스트리아 1개), Banco Pastor SA, Caja de Ahorros Mediterraneo, Banco Grupo Caja3, CatalunyaCaixa, Unnim(스페인 5개)				
필요조치	- 불합격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 6%를 충족하기 위해 총 35.3억 유로의 자본금 추가확충이 필요함					- 핵심자기자본 비율 5%를 충족하기 위해 불합격 은행들은 25억 유로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함 - 불합격 은행들은 향후 3개월 내에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5%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각국의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함				

1) 현행 BIS 규정(바젤II)은 자기자본비율을 보통주자본(Common equity)비율, 기본자본(Tier1)비율, 총자본(Total Capital) 비율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규제하고 있음. 각 자기자본비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① 보통주자본비율=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RWC), ② 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 ③ 총자본비율=[기본자본+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 중심으로 산출한 가장 엄격한 기준이 보통주자본비율이며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으로 지칭됨.
※ 보통주(common equity):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와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을 뜻함.

표 3. 계속

	2010년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2011년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재무건전성 평가에 대한 반응	- 발표 후 주요국의 주가상승 - 대부분의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의 안도감이 표출됨 - 테스트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 국가의 은행들이 모두 평가를 통과함 - 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음 - 추가자본금 확충 규모가 작고,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배제되어 위기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음

주: 1) CEBS는 EU 회원국 금융감독기관 대표와 중앙은행의 총재로 구성, EU 집행위원회의 은행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0년 금융감독 개혁안에 따라 EBA로 개편되었음. 2011년 1월부터 출범한 EBA는 런던에 소재하여 기존 CEBS의 업무 외에 회원국의 은행 관련 정책 및 의견 차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2) 당초 평가대상은 91개 은행이었으나, 불합격이 예상되는 독일 Landesbank Hessen Thuerigen 은행이 심사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90개 은행이 평가대상이 됨.

자료: 유럽은행감독청(EBA),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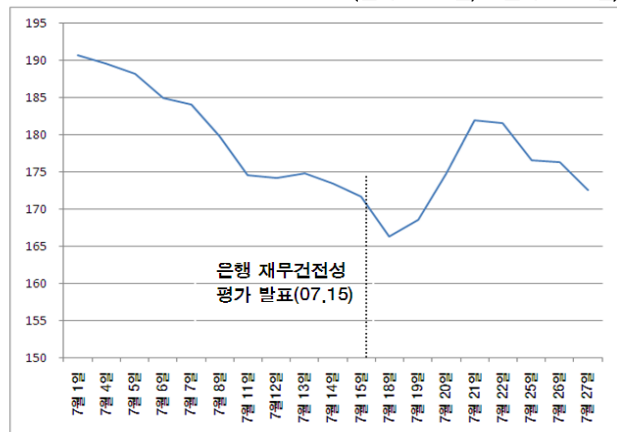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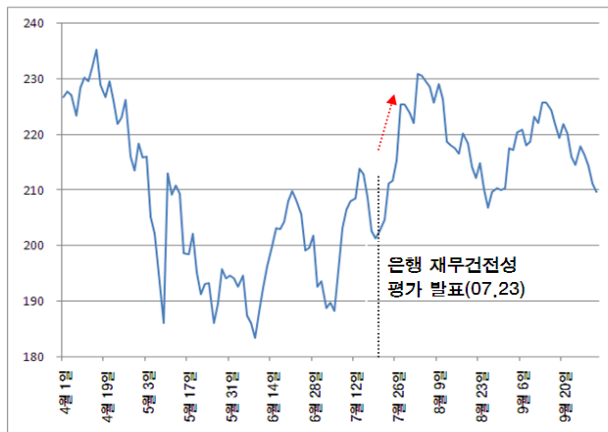
3. 재무건전성 평가에 대한 반응

■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는 유럽 주요 은행들의 재정지표와 리스크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이번 평가는 주요 은행의 이익전망치, 자본확충의 질 등 전체적으로 훨씬 많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재무건전성 평가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음.
 - 각 은행별로 10여 쪽의 상세한 테스트 결과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유럽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 직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평가임.
 - 2010년 재무건전성 평가 이후 10일 동안 유럽은행주가지수(SX7P)가 30포인트 증가한 바 있으나, 이번 재무건전성 평가 직후에는 SX7P 지수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별다른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음.

그림 2. 재무건전성 평가 이후 주가(Stoxx Europe 600 Banks) 변동

(왼쪽: 2010년, 오른쪽: 2011년)



자료: Stoxx.

■ 지난해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은 고려되고 있지 않아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이번 평가에서는 현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어 위험이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디폴트 가능성이 배제되면서 국채의 80%가 기록되어 있는 '만기보유 계정(banking book)'에 대한 상각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큰 한계로 지적됨.²⁾
- '운용자산 계정'에 있는 그리스 국채에 적용한 국채손실(hair-cut) 비율(평균 15%) 또한 과소 산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임.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현실적인 국채손실 비율은 각각 52%, 38%, 33%가 되어야 하며, 750억 유로 정도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평가 탈락 은행은 2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CT1 비율 5%를 맞추기 위해서는 250억 유로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Reuters Breakingview).
- EBA가 산정한 추가자본 확충금 25억 유로는 지난해 평가에서 제시한 35억 유로에 비하면 작은 규모로,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일부 국가의 채무재조정 시 역내 은행 간의 채무관계로 은행의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체제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임.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와 위기가 부각된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모두 재무건전성 평가를 통과함.

■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탈락한 은행이 많은 일부 국가는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은행 중 스페인 은행의 수가 5개에 이르자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금융개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
 - 스페인 정부는 자국 금융권에 대한 대외적 신뢰회복을 위해 재무건전성 평가 참가를 적극 추진하여 90개 참가 은행 중 스페인 은행 수가 25개(전체의 28%)에 달하며, 이들은 스페인 은행의 총자산 중 93%를 차지함.
 - 스페인 정부는 EBA가 금융권 구조조정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충당금(FROB)³⁾을 감안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함.
- 그리스의 EFG Eurobank Ergasias은 CT1 비율이 4.9%로 기준에 미달하여 평가에서 탈락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일반충당금 및 자본 확충계획이 반영될 경우 비관적 시나리오하의 CT1 비율은 7.6%가 되어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의 sterreichische Volksbanken은 45%의 CT1 비율로 평가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오스트리아 은행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본손실보존 조치가 감안되었을 경우 비관적 시나리오하의 CT1 비율은 9.8%일 것으로 자체 평가함.

2) 은행의 자산은 보유 목적에 따라 운용자산과 만기보유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음. '운용자산 계정(trading book)'은 운영(trading)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등록되며 현금성 채권이 포함됨. '만기보유 계정(banking book)'에는 은행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상품이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등록됨. 따라서 은행은 만기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지표상의 가치변동을 고려하지 않음.

3) 스페인 정부는 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6월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을 설립하였으며, 990억 유로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함.

- 독일의 Landesbank Hessen Thuerigen은 독일 내 자체평가에서는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CT1 비율이 6.8%로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의결권 주식(silent participation)을 EBA가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자 평가 발표 이틀 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4. 향후 전망

■ 그동안 지연되던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합의가 지난 7월 21일 유로 지역 정상회의에 의해 이루어졌음.

- 유로 지역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2011~14년 기간 동안 1,090억 유로를 신규 지원하고, 금리인하와 함께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신규 지원금 중 재정적자 충당과 은행 재자본화에 각각 380억 유로와 200억 유로가 소요될 예정이며, 기발행 국채의 시장가 매입과 국채차환 시 채권담보를 위해 각각 200억 유로와 350억 유로가 할당될 것으로 예상됨.
 - 연 4.5~5.8%인 상환 금리를 3.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현재 7.5년인 상환기간 또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임.
- ※ 금리 하향조정은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도 적용됨.
- IMF의 지원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라가르드(Lagarde) IMF 총재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민간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금융지원도 구체화되어 2011~14년 기간 중 54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은 그리스 국채 보유은행 90%(채권보유액 기준)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채교환 및 기발행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370억 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IIF는 2014년까지 540억 유로, 2020년까지 1,35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그리스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표 4]에 제시된 네 가지 방안에 따라 금융지원에 동참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2020년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에 대해 21%의 상각을 실시하여야 함.

표 4. 금융지원에 참가하는 선택적 방안(instruments)

선택적 방안	표면금리(coupon rate)	방식
① 30년 만기물로 액면가 채권교환	1~5년: 4% / 6~10년: 4.5% / 11~30년: 5% / 평균 4.5%	교환된 채권은 최고등급(AAA) 채권에 의해 담보
② 만기 시 30년 만기물로 차환(roll-over)	1~5년: 4% / 6~10년: 4.5% / 11~30년: 5% / 평균 4.5%	교환된 채권은 최고등급(AAA) 채권에 의해 담보
③ 액면가의 80%로 할인한 후 30년 만기물로 교환	1~5년: 6% / 6~10년: 6.5% / 11~30년: 6.8% / 평균 6.42%	교환된 채권은 최고등급(AAA) 채권에 의해 담보
④ 액면가의 80%로 할인한 후 15년 만기물로 교환	5.9%	최고 40%까지 손실보존

주: 선택적 방안을 통한 금융지원은 전체적으로 25%씩 균일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료: IIF.

클상자 1. 그리스 2차 구제금융과 프랑스, 독일의 입장

- 지난 7월 21일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EFSF와 향후 신설될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이 예방적 차원에서 비구제금융 국가의 국채를 유동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EFSF와 ESM이 유럽판 IMF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통합'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을 의미함.
- 금융지원에 민간은행의 참여가 결정된 것은 그동안 채권자와 납세자의 '고통분담론'을 주장해 온 독일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타협으로 볼 수 있음.

■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발표와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 확정으로 금융지표는 단기적으로 크게 호전되는 상황이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민간참여의 경우 은행권의 손실과 함께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어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함.

- 유럽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그동안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온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확정되면서 발표 직후 금융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세를 나타냄.
-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은 2011~14년 동안 신규자금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므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채무재조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리스 및 유럽 은행권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재무건전성 평가대상이 된 90개 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는 총 982억 유로 규모이며, 이 중 그리스 은행이 69%,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각각 9%와 8%를 보유하고 있음.
- ※ 그리스 국채보유 규모(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BNP Paribas(프랑스, 50억 유로), Dexia(벨기에, 35억 유로), Commerzbank(독일, 30억 유로), Generali(이탈리아, 30억 유로), Société Générale(프랑스, 27억 유로).
- 그리스 국채(2020년 이전 만기)에 대한 21%의 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은행들의 재정지표는 이번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표 5 참고).

표 5. 그리스 국채에 대한 주요 채권은행들의 자산상각 전망

은행	2020년 만기도래 채권의 상각	전체 채권 상각(백만 유로)
BNP Paribas	265	1000
Dexia	108	727
Société Générale	512	557

주: 7월 29일까지 33개 은행이 그리스 국채 교환 및 만기연장을 통한 금융지원에 찬성한 상태임.

자료: Bloomberg Businessweek(2011. 8. 2).

- 신용평가사들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채권만기 조정 시 이를 선택적 디폴트로 간주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으며, 시장이 신용평가사들의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과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를 전후하여 불안이 증폭될 소지가 있음.

- 현재 3대 신용평가기관은 그리스에 대해 디폴트 직전의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Fitch는 채권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할 것임을 발표(2011. 7. 29)하였으며, 현실화될 경우 다른 신용평가기관들도 유사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됨.
- ECB는 3대 신용평가사들이 모두 그리스 국채에 대해 디폴트 판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리스 국채를 계속 담보로 받아들일 것임을 밝히고 있음.
- 현재 그리스 은행권이 자국 국채를 담보로 ECB에서 차입한 자금규모가 1,000억 유로에 이르러 ECB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 국채에 차례로 디폴트 등급을 부여할 경우 금융 지표가 악화되고 은행 간의 리스크 파급이 우려될 수 있음. 